

청소위탁업체 선정 복수입찰 '일석삼조'

<특혜시비 근절·예산 절감·서비스 향상>

광주 남·광산구, 경쟁체제 도입 위탁비용 30% 줄여 동·서·북구, 단독입찰 고수 쓰레기 처리 민원 들끓어

최근 광주지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각 구가 청소위탁업체 선정 시 단독입찰이 아닌 복수경쟁체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구에서 도입·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청소위탁업체 독점체제가 지속하면 열세(血稅) 낭비는 물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는 한편,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29일 각 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생활폐

기물 청소위탁업체 선정 시 단독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는 동구·서구·북구 등 세 곳이다.

이들 구는 1~3년 간격으로 H·K·G청소위탁업체와 재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들 업체와 27년, 길게는 35년간 단독입찰을 해왔다. 이들 구가 지난 3년간 청소위탁업체에 지원한 위탁비는 ▲2012년 221억 7000만 원 ▲지난해 215억6000만 원 ▲올해 214억9000만 원 등으로 모두 652억 2000만 원이다.

해마다 위탁지원금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지자체 홈페이지에 '쓰레기를 치워달라', '쓰레기를 며칠째 수거해가지 않는다' 등 청소행정에 불만을 터트리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남구와 광산구는 수년 전부터 복수 경쟁체제를 도입, 청소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2009년 안전행정부의 합동 감사를 받은 뒤 복수경쟁체제를 도입, 예산 절감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남구는 복수경쟁체제 도입 후 위탁비를 34억6900만 원에서 24억3200만 원으로 30% 가량 줄였다. 청소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되

면서 민원도 대폭 줄었다는 게 구청 직원의 설명이다. 그간 단독입찰방식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 시비가 일었다.

동구는 지난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입찰 공고를 냈으나 기존업체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위탁업체 선정시 복수경쟁방식으로 바꾼 뒤 사실상 특혜시비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입찰로 청소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가을 정취에 흠뻑...비 내리는 가로수길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린 20일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이 든 광산구 임방울대로 가로수길을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해외도피사범 10명중 9명 못 잡아 광주지검 검거율 전국 지검중 최하

미제사건도 작년 2배 늘어

광주 검찰이 해외로 달아난 범인 10명 중 9명 이상을 검거하지 못하는가 하면, 미제사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만한 통계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열린 광주지검·고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 관내 국외 도피사범은 2009년 이후 모두 50명에 이르지만 검거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2009년 국외로 도피한 8명을 비롯, 2010년 5명, 2011년 6명, 2012년 10명, 2013년 16명, 지난 상반기 1명 등을 여태껏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미검률이 92%로 전국 검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주지검은 72명 중 23명(32%)을, 제주지검은 49명 중 25명(51%)을 붙잡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4304명 중 2496명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

면 8월 현재 광주지검 미제사건은 4811건으로, 지난해 2506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 기간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3개월 초과 사건만 303건, 6개월 초과 사건도 45건에 달했다. 올해 뿐 아니라 미제사건도 2010년 말 2056건, 2011년 2067건, 2012년 2243건 등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늦게 이뤄지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미제 사건 폭증은 세월호 침몰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많은 검사가 파견되고 공판 유지, 해경 수사 등에 수사 인력이 집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장기 미제사건이 많아지면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검찰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구 아파트 화단서 50대 고교 교사 숨진 채 발견

지난 19일 오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S아파트 1층 화단에 광주 K고등학교 교사 A(55)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국어교사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이명현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지난해부터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명현상으로 환청에 시달리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난 8월 병가를 신청했으며, 최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특별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3 해질 17:51 | 가을 04:00 | 가을 16:20

비바람 주의하세요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17/21	보성	비	16/22
목포	비	17/21	순천	비	16/20
여수	비	19/22	영광	비	17/23
나주	비	16/21	진도	비	18/22
완도	비	18/22	전주	비	16/20
구례	비	14/20	군산	비	16/19
강진	비	17/21	남원	비	15/19
해남	비	18/22	속산도	비	17/20
장성	비	16/20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남부	남~남서	0.5~1.0	북~북동	0.5~1.5
남해서부	남~남서	0.5~1.0	북~북동	1.5~3.0
남해남부	남~남서	0.5~1.5	남서~서	1.0~2.5

생활지수

- 식중독: 54
- 운동: 20
- 빨래: 20

주간 날씨

날짜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날씨	☁	☀	☀	☀	☀	☁	☀
기온	13/18	9/21	9/21	10/22	10/23	11/23	11/22

경찰 집회 시위 단속 소음 기준 강화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데시벨(dB), 야간 70dB에서 각각 5dB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간 한 차례 내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1개월간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내용은 제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8월부터 집회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 6곳 함유량 되레 늘어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건강음식점 6곳 모두 나트륨 함유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당의 평균 나트륨량은 296mg(음식 100g당)이었고, 초과비율은 153.2%에 달했다. 식당 6곳 모두 지난 2012년 건

강음식점 사업에 참여할 당시 약속한 나트륨의 함유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음식점은 불참 의사를 밝혀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목표의 한 음식점은 지난 2012년에 꽃게탕 나트륨 함유량이 195mg이었지만 지난해엔 2배인 422.9mg까지 늘었다. 광주의 한 음식점의 짬뽕은 172mg이던 나트륨량이 1년새 226mg으로 132% 증가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천기누설 약초보감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8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결·김달래·이광연 감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332-4972